

**서론:** 바울은 단순히 개인들을 개종시킨 것이 아니고, 공동체들을 만들었고, 그 공동체들이 이 세상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대안 사회)의 삶 - “그리스도 안에서” 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은 바울의 공동체들의 생활방식을 줄인 말이며, 새로운 정체성(누구?) 인생에 대한 새로운 방향정립, 즉 성령이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어떻게? - 지상에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P.253

“그 안”의 삶은 개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사적, 개인적)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문제였다.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안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공동생활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울의 목적과 열정이었다. (개인구원, 교회 성장, 사회 구원)

**본론:**

**“그 안”의 삶은 무엇? 누구? 인가(정체성- Who):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안에 있는 공동체들은 이 세상의 지혜(지배적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성령 안에 근거를 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영(성령)에 의해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안의 삶은 새로운 창조/피조물로서 사는 삶, 즉 서로를 돌보는 의무를 가진, 새로운 가족, 만들어진 가족(fictive family)으로 사는 것.

바울의 종말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이미 “그 안”에서 시작, 진행되고 있는 과정, 하나님의 대청소의 시작. 그의 공동체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이 본래 되어야 할 모습의 한 부분. 개인이 아니고 새시대, 새세상

**“그 안”에서 함께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방향정립-how):**

**1. 나눔의 공동체(share communities)**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공동체들은 영적, 물질적 나눔의 공동체였다 - 돌봄은 의무(근거: 빵, 경제적 취약성, 식객들)

**2. 분열이 없는 평등 공동체**

**\*갈라디아의 크리스천 유대인들과 크리스천 이방인들**

갈라디아서의 이방인 남자 개종자들의 할례문제, 복음의 왜곡.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할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교리가 아닌 헌신과 신뢰)에 의한 것이고, 그 약속은 단 하나의 후손인 그리스도에게 전해 졌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와 상관 없이 약속의 상속자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와 하나가 되고(into Christ), 그를 옷으로 입은(with Christ) 사람들이기에, 유대인/ 그리스인, 노예/자유인, 남자/여자의 차별이 없이 그 안에서(in Christ)하나, 그에게 속한(to Christ) 상속자(갈 3:26-29).

그 안에서 하나라는 주장은 인류가 하나라는 보편적인 선언이 아니고, “그 안”에서는 분열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위계질서, 우월적 지위)잘 지내자는 일체성(unity)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평등성(equality)을 말하는 것이다.

###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의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바울 공동체의 주님의 만찬은 의례가 아니라 식사 나눔이었다. (빵을 떼고, 식사, 잔을 돌림).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은 위계질서와 불평등을 반영(먼저 먹고, 다른 것을 먹고)

주의 만찬은 자신을 살피고, 몸(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을 분별(discerning the body)한 뒤에, 같은 식탁에서 평등하게 똑같이, 누구나 넉넉히 받는 것,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물건을 나누는 것이다.

### **3. 정의를 내포한 사랑의 공동체**

#### **\*고린도의 위계질서와 영적인 은사**

특별한 영적인 은사(방언 - 보편적인 소통의 언어가 아닌 황홀경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사적인 언어)으로 우월적 지위를 주장.

은사는 다양하며(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의 해석), 한 분 성령에게서 온 것이므로  
1) 은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위계질서는 없어야 한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평등하다. 모두 중요하다.)  
2) 그러나 은사들 자체에는 위계질서가 있다. 최고는 사랑

1. 사랑은 영적인 은사(의지, 결정이 아님) - 성령 인식의 결과이며 증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로서 다른 은사들을 평가하는 기준
2. 바울에게 사랑은 감상적이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의 행동을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더 나은 세상)가 있다. 사랑의 사회적인 형태는 분배적 정의와 비폭력, 빵과 평화  
사랑은 그리스도 안의 생활, 성령 안에서의 생활, 성령을 받아 생명을 얻은 삶을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한 것

사랑은 개인을 향한 연민이상을 의미한다. 세상을 다스리던 지배체제에 맞서는 것, 세상의 지혜가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창조하는 일에서 성령과 협조하는 것을 뜻했다. 바울에게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간다. 사랑은 정의의 심장이며, 정의는 사랑의 사회적 형태이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양꼬, 찌빵?) 구제/ 사회 개혁

### **4.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공동체**

#### **\*두가지 생활 방식: 육체(flesh)와 영(spirit)**

육체(flesh)를 따르는 삶과 성령(spirit)을 따르는 삶을 대조. 육체(flesh)는 몸(body)와 구별해야 함, anti-body 가 아님. 몸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안의 생활, 성령 안의 생활과 대조가 되는 육체의 행실야 문제이다.

육체의 행실은 성령 이외의 다른 것, 유한 것을 중심에 놓고 사는 것, 이 세상의 지혜 곧 시대의 지배체제가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 살아가는 것 - 원수 맺음, 다툼과 시기, 분냄, 분쟁과 분열, 파당, 질투로 드러남

대안은 성령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방식이며, 그 열매는 -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 - 성령이식의 결과

#### 5. 결론 - 개인적인 변화의 삶을 사는 공동체

**\*바울의 작별 편지(빌립보서) -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로 생각, 애정, 무거움, 침착, 감사, 기쁨의 어조**

바울이 바란 “그안”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

빌 4:8-9,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빌 4:11-13 “그 안에서” 산 바울의 모습은 비천/풍족, 배부르거나/굶주리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 성령이식된 자의 모습

빌 2:1-4 격려, 사랑의 위로, 교제, 동정, 자비의 행위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경쟁, 허영이 아닌, 겸손으로, 자기일만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기)

빌 2:5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자기 비움/ 자기 변화/

빌 2:6-11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세상의 지혜와 다른 생활의 비전 때문에 제국의 권력에 의해 십자가 처형)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고 고백하여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황제와 다르게 자기를 비움으로써,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마음과 가야할 오솔길(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생활 방식)을 보았다. 그것은 개인적인 변화의 길이며, 그 길을 간 값은 바울의 목숨이었다.**

#### 생각해보기

1. 바울은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2.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은 누구이며, 그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할례는 무엇일까?
3. 전도 대상? 바울은 반대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기회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흔들리던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 p. 265